(2023)년 4월

주체 1 1 2

토요일

음력 3월 10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새 거리에 넘쳐나는 인민의 웃음소리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회주의리상사회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양의 화성지구에 사회주의번 화가, 인민의 리상거리가 응 장하게 솟아올랐다.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군 민건설자들은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영광과 궁 지를 기적창조의 열정과 기백 으로 승화시켜 또 하나의 혀 대적인 도시구획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150여정보의 면적에 일떠 선 다양하고 현대적인 초고 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 물, 봉사망, 시설물들의 매 요소마다에 민족적향취가 픙 기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며 경제성과 실용성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여있는 화성거리.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은 인민 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 함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민헌신의 고귀한 결정체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일대를 인민의 행복 과 사회주의문명이 개화만발 하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 변시킬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두번째 단계로 화성지구에 또 하나의 대건설전역을 전개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진행정형에 대하여 일일 이 료해하시며 현대도시의 표본구역으로 건설하도록 공 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평 양의 휘황한 래일을 비껴안 고 새로운 선경거리가 솟아

금수산태양궁전가까이에 거창한 변혁의 시대를 상징하 는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선 화성거리, 인민의 리상향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인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 을 다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응축된 사 회주의번화가로 이사짐을 실 은 차행렬이 런일 줄지어 들 의 주인이 아니라 한갖 《말 어서고있다.

리를 펴게 된 근로자들을 평 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 부 일군들과 건설자들, 정권 기관 일군들이 열렬히 축하해 주고있다.

제 1 8호 【루계 제 2 7 4 8호】

화창한 봄계절과 더불어 새 집들이기쁨이 넘쳐나는 거리 이 펼쳐지고 공화국기가 나 붓기는 집집의 창가들에서는 고마움에 목메여 터치는 감 격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리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집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 자손손 행복하며 화목하고 보 람넘친 생활을 누려가기를 축 원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은정속에 행복의 변 금자리들에 입사한 사람들,

그들은 이 땅 어디서나 볼 어떠한가. 수 있는 평범하고 성실한 근

자본주의사회같으면 아무리 피땀을 흘려도 문명과 향유 하는 로동도구》, 《기계》로 나라에서 무상으로 안겨준 밖에 취급될수 없는 평범한 현대적인 살림집에 새 보금자 근로자들이 온 세상이 부러

워하는 사회주의번화가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보금자리를 편것이다.

물인 40층살림집에 입사하였 습니다. 평범한 로동자인 저 에게도 이런 희한한 집이 차 례졌습니다. 저같은게 뭐라고 이렇게... 이 하늘같은 은덕 을 어떻게 다 갚을수 있겠습

평양강철공장 로동자인 박 광철은 창밖으로 안겨오는 웅 장한 새 거리의 장관에서 눈 을 뗼수 없다고 하면서 지난 해 송화거리에 입사하는 사람 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오 늘은 나라에서 마련해준 화성 거리에 자기와 같은 로동자가 정도 새집들이를 하였다며 눈 굽을 적시였다.

화성구역 화성1동에 새집을 받은 평천구역상하수도관리소 로동자인 리철운의 심정은 또

몇달전까지만 해도 화성지 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 총계획도앞에 서서 황홀함을 금치 못해하던 그였다.

그렇게 훌륭한 새집을 자기 가 배정받았다고 하면서 이렇 게 말하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꽃퍼나는 새집들이경사가 우 리 가정에도 꿈만 같이 펼 쳐졌습니다. 은정어린 살림 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고 밤 다. 신문과 TV에서 보아오던 이런 멋쟁이살림집이 내 집이 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꼭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우리 원수님께 고마움의 큰절을 올 리고싶습니다.》

전쟁로병들을 그 무엇에도 비길데없는 보배로 내세워주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 집에 보금자리를 펴니 10년. 20년은 더 젊어지는것같다고 하면서 로쇠를 모르는 열정과 기백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받드는 길에서 공민의 본분을 다해갈 심정을 토로한 화성구역 금릉 1동에 새집을 받아안은 김기 호로인.

어찌 이들만이랴.

화성구역 화성3동 70인민반 에 새살림을 편 서명철, 리진 향부부는 나라에서 제대군관 들의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법을 내오고 자그마한 불편이 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 주고있는데 오늘은 또 현대적

겨주었다고, 정말 우리 당이 제일이고 인민이 주인된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대성구역 룡흥2동에 살던 김광성은 자식들에게 훌륭 들의 소원을 나라에서 풀어 주었다고 하면서 화성거리에 새집을 받아안은 꿈같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 아들이 복 무하는 조국보위초소에서도 기쁨이 넘쳐날것이라고 말하

이런 감동깊은 화폭은 황 홀한 별천지같은 화성거리에 이사짂을 편 어느 가정에서나 펼쳐졌다.

인민의 리상거리에 새집들 이하는 꿈같은 행운을 받 아안은 만복의 주인공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 고 복받은 삶을 누러가는 영 팡과 행복을 감격의 눈물속 에 토로하면서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헌신분투해나갈 충성과 보답의 맹세를 다짐 하고있다.

서성구역 중신고급중학교 교원인 홍옥순은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은 인민의 복리를 최

우선시하는 우리 조국의 인 미대중제일주의정치가 안아 온 눈부신 현실이라고 하면 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서 인민이 향유할 문명의 새 어 금수산태양궁전가까이에 서 1만세대의 새집들이경사가 또 났으니 정말이지 날마다, 시간마다 사회주의만복이 봄 날의 화원처럼 만발하는 내 나라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삶의 요람. 행복의 보금자리를 근로하는 인민에게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의 은덕에 애국헌신으 로 보답하는것이야말로 이 나 라 공민, 이 땅의 교육자들의 응당한 본분이고 도리가 아니

7층 3호에 새집들이한 리광 철의 심정도 다를바 없었다.

우리같은 평범한 로동자들 이 리상으로 그려보던 현대적 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 안고보니 하늘같은 이 은덕 에 어떻게 보답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남부러운것없이 잘살게 된다 오늘의 이 행복을 한생토 록 간직하고 일편단심 우리 원수님을 받들어 충성과 애국

의 한길만을 걷겠다. 참으로 새집들이로 설레이 에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 한 인민의 다함없는 고마움과 보답의 맹세가 격정의 바다가 되여 흐르는 사회주의문명의 리상향이다.

황홀한 새 거리에 넘쳐나 는 복받은 근로자들의 웃음 소리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 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며 인민이 주인된 문 명부흥의 새세상을 눈부시게 펼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여 더욱더 부강해질 공 화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려

주고있다. 령도따라 사회주의의 밝은 미 래를 향하여 기세차게 나아 가는 공화국이 이제 또 어떤 새로운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드높은 애국열정과 비상한 창 조정신을 발휘하며 응대한 목 표실현에로 용진하는가를 보 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홍 범 식















거리와 마을, 산과 들에 꽃 들이 피여나는 이 아름다운 봄계절에 공화국의 그 어디에 서나 기쁨과 환희, 랑만에 젖 어 웃고 떠드는 각계층 주민 들을 볼수 있다.

아직 모든것이 풍족하지는 못하고 애로도 없지 않지만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는 그 늘을 찾아볼수 없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준공된 화성지구 1만세대의 새 거리와 평산군, 회창군, 재령군, 청단군, 서흥군을 비롯하여 각지에 펼쳐진 새 집들이경사로 온 나라가 명절 분위기로 흥성이는 공화국이 다. 5.1절을 맞으며 다채로운 경축행사들과 체육경기들도 이르는 곳마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흥그럽게 해주고있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 절이 제정된 때로부터 백수십 여년이 흘렀지만 공화국에서 와 같이 근로자들이 창조와 건설의 주인, 향유의 주인이 되여 뜻깊은 5.1절을 성대히 맞이하는 나라는 없다.

하기에 화성지구의 새집에 입사한 평양화력발전소의 한 로동자는 《우리 세상은 정말 로동계급의 세상입니다. 이 고 마운 사회주의조국을 더 많 은 땀을 바쳐 빛내이겠습니 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 을 토로하였고 재령군 신환포 리의 한 농장원은 《나라에 서 이렇게 무상으로 번듯한 문화주택을 지어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오직 우리 나라밖 에 없을것입니다. 우리 가족 은 올해에 더 많은 쌀을 증산 하는것으로써 이 사랑에 보답 하겠습니다.》라고 격정을 터

영원한 인민의 절세위인을 모시여

어찌 이들만의 심정이겠는

가. 5.1절을 즐겁게 쇠게 될 공화국의 모든 근로자들의 한 결같은 마음이고 맹세이다. 이 지구상을 둘러보면 얼마 나 많은 근로자들이 극심한

로동조건과 생활난으로 하여 비참하게 살아가고있는것인 가. 아무리 뼈빠지게 일을 해 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 고 언제 해고될지 몰라 가슴 조이는 로동자들이 수두룩하 고 실업자가 되여 길거리를 방 황하는 사람들의 처량한 모습 도 어디가나 볼수 있다. 사회 적으로 부는 늘어나도 몇몇 특권층, 재벌들만 배를 불리 고 절대다수의 근로하는 인생 들은 계속 가난과 빚에 쪼들 려살아야만 하는것이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세계의 참 혹한 현실이다. 하기에 1%의 가진자들을 반대하는 99% 인 민대중의 항의시위의 물결이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를 휩 쓸고있다.

이 땅의 인민들도 지난날 봉건적억압과 식민지통치의 악정에서 2중3중으로 시달리 며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그러던것이 나라가 해방되 고 인민의 세상이 펼쳐지면서 부터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 인, 땅의 주인이 되였으며 자 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 여 존엄과 행복을 꽃피우게

공화국을 인민이 주인된 존 엄높은 나라로, 덕과 정이 차 넘치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오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치를 펼치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도 위대 한 우리 인민을 자신의 운명 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 의 충복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것이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맹약하시였다.

이렇듯 인민에 대한 불보 다 뜨거운 사랑과 정을 지니 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 시기에 지난 10여년간 이 땅 우에 세인을 감동시키는 인민 사랑의 력사를 새겨오시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주체 101(2012)년 9월 창전거리 살 림집들에 입사한 평범한 근로 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 리도 환히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 지 못하고있다.

평범한 교원가정, 로동자가 정, 신혼부부가정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새집이 마음에 드는가, 생활하는데 불 편한것은 없는가, 물은 잘 나 오는가를 비롯하여 생활의 구 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였 다. 이날 집주인들로부터 살림 살이하기에 정말 좋다는 이야 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 시하고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 민을 위하여 실시되는것이 우 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라고 뜨

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나라의 평범한 근로자들 에게 훌륭한 새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고도 주신 사랑이 적 신 가운데서도 몸소 찾아오 시여 사랑의 선물도 한가득 안겨주시며 축배잔까지 부어 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을 뵈오며 공화국인민들 있었으랴. 은 또 한분의 인민의 수령을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으로 눈굽적시였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지금 으로부터 10년전 김정숙평양 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 을 돌아보신데 이어 공장합숙 을 찾으시여 어버이장군님께서 공장합숙을 잘 지어줄데 대 해 간곡히 당부하시였다고 하 시면서 자신께서 책임지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시겠다고 사랑 의 약속을 하시고 친히 부지 도 정해주시고 강력한 건설력 량을 파견하여 짧은 시일에 완공하도록 해주시였다.

그 이듬해 4월 로동자합숙 이 일떠섰을 때에는 몸소 나오시여 공장로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새로 건설한 로동자합숙에서 5.1절 경축 로동자연회를 성대히 진 행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날로 더해만 가는 경애하는 그이의 인민사랑은 어느한 기 계공장에 새로 꾸려진 강성원 에도 어려있으며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에 나앉았던 라선시 백학동 과 함경남북도와 은파군 대청 리를 비롯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속속들이 스며있다.

예로부터 불난 곳에 건질것 은 있어도 물난 곳엔 건질것 으신듯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 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큰물로 집과 가장집물이 통채로 떠내려가 한지에 나앉게 되였을 때 누 군들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수

보

허나 그것도 잠간이고 피해 지역들에는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이 비쳐들었다.

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 난을 제일 가슴아파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계시여 국 가적인 구조대책이 취해지고 건설전투들이 도처에서 벌어 져 불과 몇달후에는 자연재해 의 흔적이 말끔히 가시여지고 황홀한 살림집들이 번듯하게 일떠서 인민이 터치는 감사의 막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어찌 그뿐인가. 적대세력

의 가증되는 고립압살책동과 뜻하지 않은 보건위기로 하여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 니였지만 인민과 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지 켜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철의 의지에 떠받들려 지난해 송 신, 송화지구에 1만세대의 현 대적인 리상거리가 일떠서 평 범한 근로자들이 새 보금자리 를 퍼게 되였으며 로력혁신자 들이 경루동의 궁궐같은 새집 을 받아안는 꿈같은 현실도 펼쳐질수 있었다.

올해에는 금수산태양궁전가 까이에 일떠선 화성지구 1만

세대의 새 거리에서 돈 한푼 안내고 덩실한 새집을 받은 각계층 주민들의 행복의 웃음 소리가 화창한 이 봄날을 더 욱 환희롭게 하고있다.

진정 모든 사색과 활동의 첫자리에 인민을 놓으시고 인 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기 위 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불같은 인민사랑과 헌신에 의하여 이 땅우에서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날로 더욱 커 가고있다.

공화국의 이러한 현실을 목 격한 많은 외국의 인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조 선이 난관앞에 굴복하거나

좌절당하지 않고 승승장구하 는것은 바로 인민에 대한 멸 사복무의 정치를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를 모시고있기때문이다.》

[2]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인민 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 이 조선을 하나로 굳게 뭉치 게 하였으며 그 힘으로 조선 은 전진하고있다. 조선은 영 원히 인민의 나라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승승장구 해나갈것이다.》라고 격찬하 였다

근로하는 인민을 제일 중히 여기시고 인민의 존엄과 행복 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령도자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공화국 은 영원한 인민의 나라로 세세 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주일 봉



1940년 5월 1일이였다. 당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비상 용식량은 통털어 강냉이 한사발 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환자들 에게 몇알씩 내주고나니 남는것 이 없었다.

그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는 대원들과 함께 개구리를 잡 으시였다. 겨울잠이 채 깨지 않 은 개구리여서 대원들은 잠간사 이에 퍼그나 많은 개구리를 잡 게 되였다.

얼마후 삶은 개구리를 식탁우에 차려놓은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 을 모시고 빙 둘러앉았다. 맹물에 삶은 《개구리료리》, 그것이 5.1절 **《**특식**》**이였다.

5

선

0

그날 저녁 우등불을 크게 피 우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대원들에게 오늘은 비록 《개구리료리》로 5.1절을 쇠였 지만 일제를 타도한 다음에는 평양에 가서 대동강의 숭어료 리로 조국해방을 경축하자, 적 들이 지금 우리를 어째보겠다

대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중첩 되는 곤난을 신념과 의지로 이 겨내고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되

대로 굴하지도 않고 주저앉지 막쓴하시였다 도 않을것이다. 우리모두 래일 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선민 족의 자부심, 혁명가의 자부심 도 드높이 일제침략자들을 때

대한 새로운 리해 5.1 절에

5.1절을 전세계로동계급의 명절 나하나 론증하시였다.

5.1절을 전세계로동자들의 명

고 발악하고있지만 우리는 절 러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 해 더 굳세게 싸워나가자고 하

찾고야말 결의가 차넘쳤다.

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라고 하여왔는데 이제는 그에 대한 리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를 하

과학적인 론거와 사리정연한 주장으로 변화된 로동계급의 처 지와 사회계급관계에 대한 명확 한 표상을 일군들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주 체적립장에서 5.1절을 전체 근 로자들의 명절로 쇠도록 하여야 한다고, 근로자들이라는 범주에 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시며 말씀을 이어 가시였다.

우리 당은 해방후부터 5.1절

주체95(2006)년 5월 1일 일군 절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당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 당 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선 진분자들로 조직된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이다. 그런데 5.1절을 로동계급의 명절이라고만 하면 우리 당의 대중적성격이 왜소화 되는감이 있다. …

> 을 근로자들의 명절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다같이 쇠 도록 하였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전 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는 구호도 《전세계근로자들 은 단결하라!》로 고치고 우 리 식대로 이 구호를 들고나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주체라고 강조

로동자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5.1절에 즈음하여 어느한 공장 의 로동자들을 찾으신 날은 주 체101(2012)년 5월 1일이였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인 5.1절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 에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공 장로동자들의 감격과 격정은 참 으로 컸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계의 성 능이 대단히 높고 현실에서 은 을 내고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 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식의 현대적인 기계제품을 제작 해내고있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 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공장에 새로 일떠세운 로동자들의 문화정서 생활기지도 돌아보시였다.

수영과 물놀이를 하고있는 로 동자들의 모습도 즐겁게 바라 : 가신 로조친선각》, 《조선로동당 보시고 리발실에 들리시여서는 잘 꾸렸다고, 리발을 하고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서 저저마 다 리발을 해드리겠다는 리발사 들의 격정에 넘친 청에 다심한 은정을 덧놓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로동자들이 리용할 봉사설비들 과 체육기재들의 질을 가늠해보시 고 로동자들이 좋아하겠다고 하 시며 그리도 환한 미소를 지으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 모두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지금 우리 인민들은 기 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 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따 르고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당, 이 부름은 그 어느 사상가나 정

치가, 로동계급의 수령이 정식화 대들, 호상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스 스로가 불러준 조선로동당특유의 을 서는 사 람들의 발 명예칭호이고 명함이라고 뜨겁게

조선로동당이 어떻게 되여 전 체 인민의 무한한 존경과 신뢰 받는 존엄높은 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가를 세상사람들은 경애하는 그이의 이 금언을 받아 안으며 심장속에 새겼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 민을 정히 받들어야 한다는 숭고 • 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고생 을 락으로 여기시며 위민헌신의 려정을 끊임없이 이어오시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커다란 • 슬픔을 안고 온 나라가 피눈물 • 속에 잠기였던 10여년전 12월의 · 그 나날 추운 겨울밤 추위속에서 • 인민들이 떨고있다는것을 아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

는것을 명심하고 인민들의 편의 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할데 일군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불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조의식장들에 새로 생겨난 몸 녹 이는 가설물들, 의료천막들과 물매

밀에 놓여지 던 따스한

> 얼 어 든 가슴가슴에 는 그 지극한 열과 정을 안으며 위대한 어버이의 모습을 우러러 뵈온 이 땅의 인민이다.

조국의 북변 한끝에 사는 라 선땅 인민들을 찾아 이어가셨던 수천리의 하늘길, 바다길, 령길, 저 섬에는 사랑하는 인민들이 있 다고, 그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 가 들려오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끝끝내 이어가신 풍랑사나운 바 다길, 자식들을 부르는 어머니의 정다운 목소리마냥 야전렬차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려퍼졌던 검덕

지구의 아슬한 협곡철길…

봄볕마냥 흘러드 허리굽혀 인사를 하시며 당과 국 가의 중요회의들과 뜻깊은 자리들 에서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할

것을 엄숙히 맹약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엄하신 영상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인민들

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까지 합쳐 가장 따

뜻한 축복을 안겨주시고 찾으시는

세상사람들은 또

겹게 목격하였던가.

인민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 후 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위험천 만한 화선길을 걷고걸으시고 자 연의 광란이 휩쓴 피해지역들로 한달음에 달려가시여 력사에 류 례없는 사랑의 특별조치들을 취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진정 이 나라 천만인민의 운명 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 어오는 바람을 가늠해보시며 하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자신에게 는 영웅칭 호도 훈장 도 필요없 다고, 이를

억척의 의지를 안으시고

악물고 혀

인민을 위한 천만고생을 락으로,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

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간주하시

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를 깨물면 서라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 은 일을 하려고 한다시며 상상을 초월하는 완강한 의지로 삼복철 강행군, 눈보라강행군, 심야강 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마식령스키장에 서보면 인민들 이 리용할 삭도인데 자신께서 먼 저 타보아야 한다고 하시던 그날 의 자애로운 음성이 울려오고 창 전거리에 가보면 45층의 한 살림 집을 찾으시여 창문으로 새여들

시던 그날의 따뜻한 가르치심이 들려온다.

은파군 대청리에 마음세워보 아도 우리 인민을 위해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음성이 들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당을 따라 만난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럮없는 생활을 안겨주시려 그 리도 마음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심혈, 다심한 정과 세심한 손길은 온 나라 방 방곡곡에 수풀처럼 일떠선 인민 의 리상거리, 선경마을들로부터 《민들레》 학습장과 같은 아이들 의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크고작은 수많은 재부들마다에도 그 얼마나 력력히 깃들어있는가.

이런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로동당은 인민 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 는 향도의 당으로, 인민의 심 장속에 깊이 뿌리박은 어머니당 으로 존엄뗠치고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칭송하며 온넋과 심장 으로 받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수령님과 장군님, 위대한 위대한 경 애 하 는 을 사 적 현 판 들 로 조친선각에 정중히 새 로

제 막 식

하 싼 에 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적현판들이 로씨야의 하싼에 있는 로조친선

각에 새로 정중히 모셔졌다.

사적현판들에는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1984년 7월 1일 과 1988년 7월 6일 다녀가신 로조친선각》,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2001년 8월 : 18일과 2002년 8월 24일 다녀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2019년 4월 26일 다녀가신 로조친선각》이 라는 글발이 로문과 조문으로

모셔져있다.

로 씨 야

현판제막식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11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런방방문 4돐에 즈음하여 20일 현지에서 진행되 였다

로씨야외무성 순회대사 겸 울 라지보스또크주재 대표, 연해변

지보스또크시와 아르쬼시 부시장 들, 통일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 원동철도국, 연해변강상공회의소, 전로로병사회단체 《전투적우의》 연해변강지부, 연해변강사회단체 《조선과의 친선협회》를 비롯한 관계부문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울라지보스또크주재 우

강정부와 립법회의 일군들, 울라

리 나라 총령사와 대표부성원들 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로조친선각에 정중

히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들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로조친선각에 새로 모셔진 절세위인들 의 사적현판들에 꽃다발들이 진정되 였다.

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외무성 순회대사 겸 울 라지보스또크주재 대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돐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씨야방 문 4돐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경축 행사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 선의 공고성을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오늘의 행사는 오랜 력사와

진 행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가 무엇으로 공 고해지고 불변한가를 보여준다 고 하면서 그는 자기의 일생에 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여러 차례 만나뵈온것은 최상의 영광 으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서방세력의 제재, 봉쇄 속에서도 두 나라사이의 친선 의 전통은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고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 운 협력과 호상리해, 호혜적협 조가 계속 강화발전되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해변강립법회의 1부의장은 연해변강은 로조친선의 증견자이 라고 하면서 4월 15일 태양절이 있어 로조친선의 력사가 시작되

고 하싼의 로조친선각에 깃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자욱이 있 어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 의 력사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승되며 더욱 굳건해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울라지보스또크시 부시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돐 을 맞으며 형제적인 전체 조선인 민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한다 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인민이 선대수령들의 불멸의 업적을 변함없이 계승하 며 사회주의재부의 탑을 높이 쌓아가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 각한다고 말하였다.

울라지보스또크시민들은 로조 친선관계발전을 위한 조선당과 정부의 원칙적립장을 적극 지지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두 나 라 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리 익에 맞게 전통적인 로조친선관 계가 변함없이 강화발전되리라 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참가자들은 일신된 친선각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자고 휴식을 하는지 알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 그야말

로 기계부속품보다 못한 존

재이다.》라고 울분을 터치

남조선에서는 로동자들이

뼈빠지게 일하여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일생동안 모

아야 집 한채를 겨우 마련할

오죽 살기가 힘들었으면

《개나 돼지보다 못한 인

생》, 《전쟁터보다 더한 죽

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

들》이라고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

는 로돗자들이 나날이 늘어

남조선의 로동자들이

《〈정부〉와 재벌들은 한짝

이다.》、《살인기업 처벌하

나고있겠는가.

올라선 복받은 근로자들

공화국에서 영광의 단상에 들인가.

그들은 국가가 맡겨준 초 소에서 깨끗한 량심을 바쳐 가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고있는 로력혁신자, 공로 자들이다.

지난해 9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 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 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주시고 축하격려해주신 감동깊은 화폭은 오늘도 사 람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 직되여있다.

성대한 경축행사에 참가하 여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의 제14기 제7차회의에 참가 받아안은 로력혁신자, 공로 자들, 그들은 어디서나 만나 볼수 있는 그지없이 소박하 고 평범한 사람들이다.

경축의 그밖, 우리 당과 정부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바쳐가는 근로인민 의 애국의 구슬땀과 순결한 량심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 믿음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하게 여긴다고, 향유의 권리 보다 공민적의무를 앞에 놓 고 나라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고심하고 분투하 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야 말로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을 우러르며 로력혁신자. 공 로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 며 김영섭 안악군 은정농장 작업반장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금치 못하였다.

《평범한 농사군인 내가 국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회 한데 이어 위대한 수령님들 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 는 만수대언덕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고 성대한 경축 연회에까지 참가했다고 생각 하니 지금도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받아안은 사랑과 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말하면 나라의 쌀독 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 분을 다하기 위해 비가 오 나 눈이 오나 근면한 노력으 로 포전을 기름지게 가꾸어 온 농업근로자이다.

한생 순결한 량심으로 포전 을 지켜온 평범한 농업근로자 인 그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신

공화국의 근로자들처럼 령도자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이렇듯 크나큰 행 복과 영광을 누려가는 인 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의 땀을 뿌려온 구장지구탄

평범한 근로자들을 하늘처 럼 떠받드는 이 땅에는 만사 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깊

지난해 4월 위대한 수령님 의 탄생 110돐을 맞으며 기념주화를 발행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들, 돈을 벌지 못한다고 딸이 아버지를

한지로 내쫓는가 하면 앓는 부모를 감당

하지 못하겠다고 생명을 준 어머니를 살

해하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로

인들이 불안과 공포속에서 죽음을 기다

자식들의 학대가 얼마나 무서웠으

면 그것을 피해 우정 죄를 짓고 감

옥에 들어가고 형을 마치고 나오는

길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로인들이 다 있겠

이런 로인들에 대한 학대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정

청년들은 로인들을 《로인충》

《틀딱》, 《년금충》이라고 모독하

는 말을 거리낌없이 내뱉고있고 정치

권에서도 《나이 들면 다 장애인》,

《60살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망발을 쏟아내 로인학대를

얼마나 로인들에 대한 사회적멸시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것이 고통과

불행의 런속이고 사는것이 오히려

참기 힘든 고역이기에 죽어야 이

고통을 끝장낸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는것이 오늘날 남조선의 실

그러나 공화국의 로인들은 국가의

곳곳에 양로원을 훌륭히 건설하여

인생말년을 걱정없이 복속에 보내도

록 보살펴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부모로 모시는것이 사회

적미풍으로 되고있는 고마운 우리

회에서 로인들이 운명을 한탄하며 눈

물을 흘릴 때 이 땅에선 《세월이야

이것은 곧 사랑이 넘치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와 사랑이 메말라버린 자본

가보라지》 노래가 울리고있다.

민사랑이다.

주의제도의 차이이다.

사람 못살 남조선이나 자본주의사

혜택과 사회적인 존경과 우대속에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학대가 농후했으면 그 무슨 《로인학

대방지쎈터》라는 해괴한 시설까지 생

더욱 부추기고있는 형편이다.

겨났겠는가.

상이다.

제도.

그렇다.

치적인 문제로까지 번져지고있다.

리고있다.

1

0

O

외

OF

에

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을 때였다.

그 소식에 접한 후 사람들 의 관심과 기대는 컸다. 뜻 깊은 기념주화를 어떤 사람 들이 수여받게 될가.

경사로운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태양상을 정증히 모신 기념 주화를 현장에서 일하는 모 범적인 근로자들이 받아안았 을 때 모두가 놀랐다.

석타증산으로 조국을 받들

어갈 일념을 안고 탄전에 제 대배낭을 푼 그날로부터 수 십년세월 천길막장에 애국 광련합기업소 룡등탄광의 김 영욱소대장, 이른아침 남먼 저 출근길에 오르고 제일 늦 게 퇴근하던 대안친선유리공 장 공무동력직장의 한세창 작업반장, 단발머리처녀시절 부터 예순이 넘은 오늘까지 어느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 로 일하고있는 로력영웅 정 순복...

일터와 직종, 나이와 경력 은 서로 달라도 어머니조국 이 불러주는 이름은 꼭같았 으니 그들은 다같은 로력혁 신자, 공로자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 서 무상의 특전과 영광을 누 려가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 뿐이랴.

2022년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사 람들도 그리고 문명의 별천

(시 초)

지, 황홀한 새 거리들과 희 한한 농촌살림집의 주인들 도 모두 애국의 땀과 열정 으로 묵묵히 조국을 받들어 가는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 자들이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 소 장비직장 로동자인 김영 도는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부터 복은 쌍으 로 오지 않는다지만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여 나같은 로동자에게도 복이 쌍으로 찾아오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 졌습니다.》

그의 진정넘친 고백에는 사 연이 있다. 지난해 4월 인민 의 리상거리로 훌륭히 일떠 선 송화거리의 새집에 보 금자리를 편 그였다. 그런 그가 몇달후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만수대언덕 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고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사랑의 연회장의 주인공으로 되것이다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만복 이 찾아오는 꿈같은 세월!

이것이 바로 근로하는 인민 의 애국의 땀과 량심을 천만 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영 팡과 행복의 단상에 올려세 워주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 도의 참무습이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궁 지높이 웨치다.

근로하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내 나라가 세상에 서 제일이라고!

리 은 철

교있다

생존권은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 리이며 여기서 중요 한것은 로동생활에 서의 평등과 권리보

E

이야 죽든말든 재 벌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반인민 적인 남조선사회에 서 근로대중은 살 인적이며 비인간적 인 로동을 강요당 하면서 삶의 막바 지에로 내몰리우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초 보적인 로동보호, 안전대책도 세워 지지 않아 해마다 수천명의 로동자 들이 목숨을 잃고

그러나 당국자들 은 로동안전에 대 해 전혀 무관심 한 태도를 보이고

벌들과 기업주들은 로동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곳 에 로동자들을 마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죽 고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죽 고 유해가스에 질식해 죽는 등 재해가 끊기지 않고있다.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로동 재해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구 내몰아 로동자들이 높은

라.》, 《로동자들을 죽이는 잔인한 사회 끝장내라.》고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당 웨치며 반《정부》투쟁에 뗠 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 하는 비참한 처지에 대해 연하다.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그 누구도 로동자들이 무엇을 먹으며 어떤 곳에서 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역적패당은 생존권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을 《불법》 으로 규정하고 무지막지하 게 탄압해나서고있다.

《민주로총》 산하 《화물 련대》의 총파업투쟁도 《불 로동자들의 생활처지도 안정한 경제를 파국에로 몰 나날이 더욱 악화되고 아가는 불법파업》으로 몰 아대면서 《업무개시명령》 까지 발동하여 강경진압하

> 장시간의 로동을 반대하 고 로동안전대책마련을 요구 한 《건설로조》에 대해서도 《건폭》(《건설로조폭력배》) 으로 중상모독하면서 탄압하

현실은 근로대중을 《개 돼지》처럼 여기며 그들의 생 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 민적인 남조선사회야말로 세 계최악의 인권불모지, 민생폐 허지대라는것을 톡톡히 보여 주고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병장수하여 오래오래 살기를 희망하고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그 소원을 수많은 전설과 신화에 담아왔고 불사약에 대한 신비스런 이야기도 꾸며왔다.

그러나 인간의 장수가 정말로 그 런 불사약에 의해 이루어지는것인가. 얼마전 《로동신문》에 실린 량강도 양로원의 백살장수자로인이 감격에 겨 워 터친 말에서 나는 인간의 장수는 결코 그 어떤 신비의 약이나 남다른 육체적능력에 의한것이 아님을 새삼스

럽게 절감하게 되였다. 할머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생일상을 받아안고 만일 이 역땅에 그냥 살았다면 백살은커녕 일 찌기 어느 길거리를 방황하다 무주 고혼이 되였을것이다. 그러나 공화국 의 품에 안겨 근심걱정 모르고 행복 한 생활만을 누려왔다, 품어주고 보 살펴준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로 오늘 을 맞이하지 못하였을것이라며 눈물

을 흘리였다고 한다. 생각은 깊어졌다.

할머니가 만일 자본주의이역땅이나 남조선땅에서 살았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기쁨을 누릴수 있었겠는가.

지금 자본주의사회에서 로인들의 자살은 그야말로 사회적골치거리로 되 고있다.

응당 사회와 자식들의 존경과 보살 핌속에서 말년을 즐겁게 보내야 할 로인들이 다름아닌 자기가 낳아키운 자식들과 사회적인 학대를 받다못해 인생의 마지막 그 몇발자욱을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자식들이 있는 로인들의 운명이 이 러할진대 혈혈단신 로인들의 처지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늙은이들속에서 《사는것이 죽는것 만 못하다.》, 《나이먹어 퇴직후의 생활은 사형집행유예기간이나 다름없 다.》는 말이 하나의 류행어처럼 나돌 고있으니 그들에게 무병장수란 말은 아예 가당치도 않은것이다.

이것은 로인학대를 불치의 병으로 잉태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

편화된 비참상이다. 지난 20여년간 사회적인 자살률, 로인자 살률에서 첫자리를 차지해온 남조선에서는

인간이 오래 살고 짧게 사는것은 주어진 더 말할나위가 없다. 팔자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 인간의 운명을 병든 어머니를 길에 내버리고 달아나는 막돌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자본주의가 내 뱉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것이 철두철미 인민 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을 위해 국가도, 당도 있으며 억만재부도 인민을 위해 아 낌없이 돌려지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장수한다. 부디 불사약이 있다면 그 것은 사랑이 넘치는 이 땅 에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사랑, 인

유 현 의



여기서 시작되여라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수령님과 장군님 태양의 영상을 모신 벽화가 세워진 여기에서

사랑의 거리 산원거리는 시작되여라

이름은 예전과 다름이 없어도 몰라보게 달라진 거리의 정경 이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너무도 흐뭇하고 기쁘시여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는가

오롱조롱 매여달린 아이들 어린 소녀의 귀속말 들어주시는 자애론 어버이의 친근하신 영상 나도 진정을 터쳐 말씀드리고싶어라 이 거리에 펼쳐진 사랑의 이야기를

거리의 시작에서 한끝까지 뜨거운 은정 아니 깃든 곳 없어라 인민의 무병무탈 그리도 바라시는 원수님의 극진한 정 별천지로 펼쳐져 아, 무심히 걸을수 없는 이 거리

옥류아동병원이며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과 평양산원 유선 종양연구소

병원들이 줄지어있는 거리라고 인민이 목메여 말하는

영

이 거리에 넘치는 활력과 생기를 수령님들께 간절히 아뢰이고싶어라

수령님과 장군님 품속에 안겨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온 우리 인민 원수님 사랑에 무병장수 더욱 누리니 이 거리의 병원들 수령님들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간절한 이 마음 가슴에 사무쳐와 선뜻 걸음을 옮길수 없는 산원거리 나에겐 생각되누나

원수님 사랑에 변모된 이 거리의 변천이 너무 기쁘시여 그처럼 환하게 웃으시는것이라고

한평생 인민을 아끼고 보살피시던 절세위인들의 그 품에 안겨드는듯 가슴 쩌릿해지는 산원거리 쉬이 발걸음 뗼수 없는 아, 사랑의 거리, 산원거리여

잃라 일 겨

그 이름도 정겨운 옥류아동병원 맞은켠엔 품을 한껏 벌린 평양산원 어머니품에 안긴 자식이런듯 자식을 품어안은 어머니런듯

어머니와 한시도 떨어져 살수 없는 아이들이여서 산원이 마주 보이는 이곳에 아이들의 병원이 정히 자리잡았는가

이름처럼 구슬이 흐르고 흘러 여기에 층층 쌓인듯하구나 낮이면 해살에 창가는 보석처럼 눈 부시고

밤이면 하늘의 별들이 다 내려와 밝은 빛 뿌리는듯하여라

우리 아이들 위하시는 원수님 사랑

들어서면 저절로 눈굽 적시게 하노니 병원인가 궁전인가 너무도 황홀하고 희한해 아이들 올적마다 안가겠다 떼를 쓴다

반겨주는 곰이며 너구리와 야웅이 동화속의 낯익은 《친구》들이라 아이들 그냥은 못지나가는 복도 호실은 또 얼마나 아담하고 정갈하냐

수년세월 걷지 못하던 소년이 이 병원에서 꿈같이 대지를 활보했다 영영 고칠수 없다는 난치병을 털고 애어린 한 소녀가

심장의 고르로운 박동을 찾았다

웃음소리 넘치는 병원의 놀이터는

학교는 아니건만 교실이 있는 병원

병을 고쳐주는 의사선생님만이 아닌 국어도 수학도 배워주는 선생님 있어 랑랑한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

밖에서 보아도 안에 들어가보아도

인가

이 또한 구슬이 정갈하게 흐르는 소리

어버이의 정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여기는 병원이기 전에 사랑의 궁전 어머니품에 아이들이 안기였는가 원수님품에 안긴 행복한 아이들이다

있 어 과

이 땅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친정집이라 부르는 집 평양산원! 그 정깊은 이름을 불러



생각은 깊다 이 나라 녀인들은

귀를 기울여보라 들러오지 않으냐 새 생명의 고고성이 아기를 안고 나서는 애기어머니 저저마다 꽃다발 한아름 안겨주니 이 마음도 흥떠지누나

저것봐라 지나가는 총각애들은 저들이 태여난 고향집이라 자랑하

너희들도 언젠가는 꼭 올 집이라는 말에 불어지는 처녀들의 얼굴 수집음은 홍조로 피여나누나

세상에 하나뿐이더라 보석주단을 펼친 애기들의 궁전 받은 사랑 뜨겁고 너무도 극진해 이 나라 녀성들 하나같이 들어서며 울고 나설 때도 눈물흘리는 아, 평양산원!

얼마나 가슴치는 은정이더냐 산원에 일떠선 유선종양연구소 몸소 건설장에 찾아오신 원수님 녀성들을 위해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이

못잊을 전설로 오늘도 전해지고있거니

수령님 사랑 장군님 은정 대를 이어 끝없이 더해지는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은혜 아마도 없으리라 드넓은 이 세상에 이 땅의 어머니들처럼 복받은 녀성

우리의 미래가 태여나는 곳 우리 녀성들의 행복과 긍지가 지지 않는 꽃으로 만발하는 곳이여 이 행성에 산원이 없는 나라 없다하 지만

오, 평양산원 사랑의 집은 오직 이 땅에만 있어라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

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낸 4.24

교육투쟁 75돐을 맞으며 재일

동포들의 기념행사가 일본 도

교육회 일군들, 총련 각급

기관의 일군들과 동포들, 조

선대학교 학생대표들과 아버

그에게 남포시녀맹위원장의

책임을 맡겨주신데 이어 여러

모로 정치적으로 미숙한 그

를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

제1차확대위원회를 비롯한 주

요회의에 참가시켜 정치사상

주체35(1946)년 2월 북조

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할 때

에는 북조선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안신호녀성도

이날의 력사적인 회의에 불러

주시였으며 회의가 끝난 후에

는 그를 몸가까이 불러 만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나

게 되여 반갑다고, 언제부터

만나고싶었는데 이제야 만나

게 되였다고 하시고는 남포

시녀맹위원장이야 일본놈들

에게 오빠인 안창호선생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으며 지

금은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

하여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하고있지 않는가고 하시

며 안창호선생은 나라의 독

립을 념원하여 활동한 반일

애국자였다고 뜨겁게 교시하

주체36(1947)년 2월 북조

선인민위원회가 창립되였을 때

에는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

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인차

중앙녀맹부위원장의 책임적인

안신호녀성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

음은 한 독립인사에 대한 뜨

거운 경의와 련결되여있었으

며 그의 누이동생을 옳은 길

로 이끌어 독립인사의 이름

과 함께 한생을 영광속에 빛

내여주시려는 숭고한 의리심

본사기자

과 잇닿아있었다.

사업도 맡겨주시였다.

주시였다.

시였다.

적수양을 쌓게 하시였다.

【지회, 어머니회 성원들이 집

■ 회에 참가하였다.

꼬에서 전개되였다.

투지방

조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들

우레 섹으로 교체젠 까큭께목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36 (1947)년 10월 4일 북조선가극단(당 시) 배우들이 준비한 가극 《견우직 녀》를 보아주시기 위해 3.1극장으로 나오시였다.

19시경 극장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우들의 미숙한 공연을 보아주시였다.

이윽고 공연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이 실수없이 성과 적으로 진행되였다고 하시며 오래도록 박수를 쳐주시였다.

사실 공연이라야 명색뿐이지 정상적 인 발성법과 무용의 기본동작조차 배 우지 못한 배우들의 연기는 어설프기 그지없는것이였다.

해방되는 날까지 새끼공장에서 새끼 를 꼬던 19살의 처녀가 직녀역을 맡았 고 극장에서 표를 팔던 처녀는 사슴 아직까지 바다를 보지 못하였다

는 삭주에서 온 산골청년이 견우역을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우들 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이렇게 교시 하시였다.

《오늘 공연이 잘되였습니다.》 이때 선전부장이 가극단의 단장을 그이께 소개해드리였다.

단장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단동무들이 수고 를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시며 허물 없이 손을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가극은 처음 보았다고, 자신께서 어렸을 때 견우직녀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고 하시며 교시를 이으 시였다

《노래가 아름답고 배우들이 연기도 잘 합니다. 동무들이 이렇게 시도한것은 좋 은 일이니 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미숙한 공연을 이렇게 높이 평가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을 보다 완성시킬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단장에게 작품의 제목을 《견우직녀》라고 하지 말고 《금강산 팔선녀》라고 고치는것이 좋겠다고, 견 우직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나라에 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견우직녀와 내용도 다른데 《견우직녀》라고 할 필 요가 없지 않겠는가고 하시였다.

단장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탄성 이 터져나왔다.

《금강산팔선녀!》

얼마나 통속적이면서도 가극의 내용 이 그대로 안겨오는 제목인가.

이리하여 가극제목은 부를수록 민족 적향취가 흘러넘치는 우리 식으로 고 쳐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영 진

안신호라고 하면 그의 오빠 인 도산 안창호선생부터 생각 하게 된다.

그만큼 안신호녀성은 오빠 인 안창호라는 후팡이 있어 더욱 존재감이 두드러졌던것 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인척관 계나 후팡만으로 값있고 빛 나게 되는것이 아니다. 하다 면 무엇이 독실한 그리스도 교신자인 안신호녀성을 나라 와 민족을 위한 길에서 값 높은 삶을 누릴수 있게 하 였는가.

1945년 9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새 조국건 설을 위해 남포시에 파견하신 일군의 방으로 한 녀성이 찾 아왔다. 자기를 도산 안창호 의 녀동생 안신호라고 소개한 녀성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 의 안부를 물으며 나라를 찾 아주신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 일군으로부터 안신호녀 성을 찾았다는 보고를 받으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그의 나이가 지금 얼마이며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고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와 안신호에 대해 깊이 알게 되신것은 주체16(1927)년 2월 이였다. 당시 조선사람들이 많이 모인 길림으로 가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모 색하시며 청년운동을 지도하 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어느날 우리 나라 민족주 의운동의 거물로 알려진 안창 호가 길림에 찾아와 시국대 강연을 한다는것을 알게 되 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 육문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 의 강연을 시청하시였다.

이날 안창호의 발언에서 인 민 특히 청년학생들의 투쟁의 욕을 거세할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실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이에 써서 들

-산업과 교육을 진흥시켜 조선민족의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일제 놈들에게 통채로 빼앗긴 조

한 독립운동자들이 한꺼번에 무리로 붙잡혀 길림독군서에 구금되게 되였다.

감옥안에서 그 질문을 제 기한 학생이 김형직선생님의 자제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안창호선생은 주위사람들 에게 자기가 지난날 국내외 의 여러곳을 다니며 많은 강 연을 하였지만 이런 질문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고 하며 질문을 제기한 학생의 식견

이 놀랄만치 뛰여나다고 말

니라 그의 동생인 안신호녀성에 대하여 알게 되시였다.

1884년 11월 10일에 평안 남도 강서군 초리면 도룡섬 에서 농민 안흥국의 딸로 출 생한 안신호는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오빠 안창호를 부모처 럼 여기며 성장하였다.

신녀학교를 졸업한 다음 오 빠 안창호와 함께 반일운동 에 나섰다. 그러다가 오빠가 1938년 3월 《동우회》 사건 으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

민족의 단합과 번명을 위한 길에서

했다고 한다

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수 있

-우리 민족을 정신수양이 낮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어 떤 점이 그러한가?

-연사가 말하는 렬강이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인 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본받 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그들 의 《원조》에 의해서 독립을 가져올수 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창호 서면질문을 들이대시자 사태 는 예상외로 번져졌다. 좀전 까지 일사천리로 연설을 하 던 연사는 강연을 성급하게 가 감금된 사람들에 대한 석 마무리짓고 연탁앞에서 황황 방을 요구하는 항의투쟁과 히 물러섰다.

>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 수백명의 경찰들이 불 시에 강연장에 달려들어 수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던것 이다

이리하여 안창호는 물론 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반동 군벌들이 안창호를 포함하여 수백명의 조선사람들을 붙잡 아간데 대해서 격분을 누를 길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즉시에 《ㅌ.ㄷ》성원들의 회 의를 여시고 붙잡힌 사람들 을 석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직지도 밑에 《E.C》성원들은 중국 의 여러 신무사들에 사회여론 을 환기시키는 글도 써보내고 시내 청소년학생들과 군중들 은 매일같이 독군서에 몰려 시위를 벌렸다.

날로 더해만 가는 군중의 압력에 못이겨 반동군벌들은 20여일만에 안창호를 비롯한 구속자 전원을 석방하지 않 을수 없었다.

이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묵관, 김리대, 리관린을 비롯 는 독립운동자인 안창호뿐 아 을 베풀어주시였다.

되였다가 세상을 떠나고 반 일투쟁에 나섰던 둘째아들이 일제에 의해 학살되자 《하느 님》께 일본이라는 악을 징벌 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독실한 그리 스도교신자가 되였다.

종교인들을 대하실 때면 언 제나 안신호와 같은 애국적인 종교인들을 생각하시며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깊은 관심을 돌리군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조국에 개선하시자 곧 우리 나라 반 일애국운동에서 큰 자취를 남 기고 왜놈들에게 희생된 안창 호의 동생 안신호녀성을 찾 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던것 이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신호녀성을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역군으로 키우시 기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돌 리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

안신호녀성은 서울에서 정

22일 재일본조선인중앙집회 가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 이 보고를 하였다. 송근학 총련중앙상임위원

일본

회 부의장 겸 교육국장, 윤 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태길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그는 총련의 민족교육사업 (교직동) 중앙상임위원회 위 원장, 리성철 재일본조선인교 육회 중앙상임리사회 회장, 한동성 조선대학교 학장, 간 교직동 동맹원들과

> 일본당국의 식민주의적본성 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 으며 오늘의 민족교육의 권리 상황은 75년전을 방불케 한다 고 하면서 그는 신성한 민족 교육의 권리를 반드시 옹호고 수할것을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전체 총련일군 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는

힘차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

는 구호들이 울려나왔다.

유태길 재일본조선인교직원 을 시청하였다. 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보내온 현대사를 송근학부

의장 겸 교육국장이 랑독하

4.24 교육투쟁 75 돐 기념행사

도교에서

보고자는 4.24교육투쟁의 빛나는 승리와 그 력사적의

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 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시 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호소문이 랑독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장내 에서는 일본당국의 민족교육 차별책동을 반대규탄하고 교 육권옹호확대를 위한 투쟁을

집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조 국사에서 보내온 록화편집물 《투쟁으로 지켜온 민족교육》

진 행

이날 4.24교육투쟁 75돐기 념 력사자료전시회가 있었다. 한편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민족교육권옹호투쟁을 첫 포 성으로 하여 권익용호투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총련중앙교육권옹호투쟁추진 위원회를 재편성하고 현본부

21일 4.24교육투쟁 75돐기 념 금요행동이 일본 문부과 학성앞에서 진행되였다.

들에도 총련본부교육권옹호투

쟁추진위원회를 내오기로 하

간도지방의 총력일군들과 동포들, 조선학원 관계자들과 조선유치반보호자련락회 성원 들을 비롯한 조선학교 학부모 들, 조선대학교와 조선고급학 교 학생들과 일본의 련대성 단체 성원들이 금요행동에 참 가하였다.

총련중앙교육권옹호투쟁추 진위원회 성원들인 남승우 총 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송 근학부의장 겸 교육국장, 서

충언부의장 겸 국제통일국장 과 사무국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금요행동에서는 일본당국 의 조선학교차별책동을 규탄 하여 재일동포들의 성토발언 과 일본인사들의 현대발언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4.24교육투쟁 이 있은 때로부터 75년의 세 월이 흘렀지만 일본당국에 의한 식민주의적인 민족교육 탄압이 계속되고있다고 규탄 하였다.

그들은 세대와 세기가 바 뀌였으나 조선학교를 말살하 려는 미제와 일본당국의 반 동적본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죄하면서 참다운 민족권리 는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쟁 취할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깊 이 새기고 더욱 굳게 단결하 여 일본당국의 민족교육에 대 한 차별정책을 철회시키고 제 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굴 함없이 싸워나갈것이라고 강 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학교차별철 회 등을 요구하는 구호들을 웨쳤다.

본사기자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중단과 대일굴욕외교의 중단을 요구

-남조선에서 제 417 차 금요행동 진행-

지난 4월 21일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 《조선학 교 차별중단과 고교, 유보무 상화 적용》 제417차 금요행 동이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 었다

발언자들은 조선학교에 대 한 일본당국의 차별정책에 대해 《조선민족에 대한 명백 한 탄압이며 민족교육을 말

해지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국 가폭력》이라고 규탄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과의 《관 계개선》과 미일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해 굴욕외교를 일삼고있는 윤석

목소리들도 울려나왔다.

열역적패당에 대한 규탄의

집회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가 식민지지배와 전

살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가 쟁범죄에도 불구하고 군사대 국화에 나서고있는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대일굴욕외교 는 일본제국주의에 맞서싸워 온 우리 민족의 수많은 투 쟁을 모독하는것》이라고 하 면서 유석옄역적패당의 치잌 매국행위를 반대하여 견결 히 투쟁해나갈 결의를 다지 였다.

본사기자



굴종, 지배와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전本기지로 침 략 의 전박시키려는 적기도

1947년 3월 악명높은 《트 루맨주의》가 공포된 후 전 반적국제정세는 미국의 로골 화된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더한층 긴장되였다.

《트루맨주의》가 공포된 후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 의 발전을 《견제》하고 《봉 쇄》하기 위한 전략인 《봉쇄 정책》이 꾸머지는 속에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사회주 의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 전략계획을 극비밀리에 짜놓 았다.

특히 미국은 남조선에서 저 들의 식민지통치와 침략정책 실현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 고 아시아에서 민족해방운동 이 세차게 벌어지자 극도로 당황망조하여 새로운 침략계 획을 꾸미기 위하여 미쳐날 뛰였다.

미국대통령 트루맨의 지시 에 따라 1947년 8월 웨드마 이어가 현지조사를 위해 남조 선에 기여들었으며 그해 9월 에는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고 남조선을 전 조선과 아시아대 륙침략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기지로 리용해야 한다는 악 한 후 미국은 남조선을 공화 명높은 《웨드마이어보고》가 제출되였다. 웨드마이어는 보고에서 민

주력량에 의해서 조선의 통 일이 실현되는것은 《…극동 에서의 미국의 전략적리익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 심리적 〈위협〉 으로 된다.》 고 떠벌 이면서 민주주의적기초우에 서 조선의 통일이 실현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해나섰다. 또한 보고에서 《…남조선

〈국민〉은 그 전 령토를 완 전히 지배하기 위한 제조건 을 확립하였다.》, 《남조선 에 대한 군사원조의 장기목 적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 한 작전에 우선 남조선을, 다음에는 전 조선이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와 민족해방 운동의 장성을 반대하기 위 한 미국의 전반적인 침략과 아댔다. 전쟁정책을 위하여 남조선을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리용 하여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력설하였다. 웨드마이어의 보고를 검토 의 중요한 전초적전략기지로

국과 아시아침략의 군사전략 기지로 틀어쥐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미 1946년 6월에 조선 을 비롯한 일련의 지역에 영 구군사기지를 설치할 계획을 공표한바 있는 미국은 침략 적인 《트루맨주의》를 들고 나온 후 남조선을 저들의 군 사기지로 틀어쥐려는 흉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1947년 5월 미국의 어용 출판물 《타임》은 《조선 은 아시아동부해안에서의 지배적기지로 될수 있다.》 고 하였으며 또 하나의 어 용출판물 《포츈》은 미제침 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나 는것은 전세계적규모에서 사 회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대결외교에서 미국의 지위 를 약화시킬것이다.》고 고

선이 북아시아의 어떠한 지 다.》라고 떠들어댄것은 미 역에 대해서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태평양에서의 미국 러낸것이다.

되다는것을 강조하면서 남조 선을 그와 같은 군사전략기 지로 리용하는 문제가 《현 시기 워싱톤에서 륙군참모부 와 해군작전본부의 공동심 의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고 하였다.

남조선의 군사전략적의의 를 강조하는 미국의 로골적 이고 파렴치한 선전은 세계 제패를 추구하는 미국의 새 로운 침략정책을 직접 반영 한것이였다.

당시 미국의 어용출판 《최근에 일어난 국 제적사건이나 극동의 사건 은 모두 미군당국이 남조선 을 〈반공〉 교두보로 간주하 고있다는…감을 짙게 한다. 이러한 로선은 중국이나 일 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도 완전히 일치하는것으로 보여 지며 세계적으로 보면 공산 주의 〈봉쇄〉 를 위한 〈트루 《져널 아메리칸》은 조 맨주의〉와도 일치하는것이 국의 검은 속심을 내놓고 드

강정철

《빈손외교라도 좋으니 폭탄을 가져오지 말라》

-윤석열역도의 미국행각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조수아 HI난-

어떤 친미굴종적인 반역짓도 서슴지 않는 윤석열역도는 미국행비행기에 오르기 전부 터 남조선 각계층의 신랄한 조소와 비난을 받았다.

남조선의 《더불어민주당》 을 비롯한 야당들과 각계층 은 《불안과 공포의 1주일 이 시작되였다.》, 《〈한〉미 수뇌회담이 제2의 〈한〉일회 담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혹 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퍼주 기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고 차라리 빈손외교라도 좋

[에견되는 굴욕적 한미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

미국상전을 위해서라면 그 으니 폭탄을 가져오지 말기 를 바란다.》고 야유하였다. 유석열역도가 미국행각기 간 상전과 반공화국군사적

> 결탁강화를 모의하려 하는 데 대해서도 남조선언론, 전 문가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윤석열이 미국과 확장억제 력강화에 맞도장을 찍을것으 로 보이지만 북에 위협적인 작용을 하겠는지 미지수이 다.》고 하면서 랭소적인 립 장을 보였다.

또한 윤석열역도가 미국 한다.》, 《제발 사고치지 말 에 추종하여 《대만해협에 서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 요하다고 믿는다. 힘으로 현 와의 관계악화가 우려된다. 미국과의 회담에서 어떤 형 내주고 뒤통수만 잔뜩 얻어

어야 할것이다.》라고 주장히

상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 도 동의할수 없다.》고 떠벌 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 륙무기제공립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중국과 로씨야 태, 어떤 형식으로든 살상무 기를 전쟁당사자일방에게 제 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 칙을 천명해야 한다. 기시 다와의 회담과 같이 모조리 맞고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

윤석열역도의 미국행각과 관련한 남조선 각계의 이러 한 조소와 우려, 비난은 친 미친일사대매국행위로 악명 을 펼친 선행독재자들도 무 색케 할 추악한 숭미숭일매 국배족행위로 남조선을 헤여 나올수 없는 파국의 구렁텅 이에 더욱 깊숙이 밀어넣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는 윤석열 역도와 그 패당에 대한 응 당한 단죄이고 규탄이며 배 격인것이다.

본사기자



겁

국의 가공할 위력에 얼혼이

나가 벌벌 떨고있는것이 오늘

하기에 미국은 반공화국

《3자공조체계》를 어떻게

하나 부지하여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

에 써먹으려 하고있다. 초보

적인 분별력도 없는 역적패

당은 제 죽을줄도 모르고 체

질화된 반공화국대결의식으

로부터 미국의 이 부질없는

범죄적책동에 가담하고있는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은

역적패당의 반공화국공조

남조선민심이 역적패당을

가리켜 《스스로 전쟁의 재

앙을 몰아오는 바보》라고 조

소하고 규탄하고있는것은 너

본사기자 주 광 일

놀유이 바로 그러한 얼빠진

피함수 없는 법이다

의 현실이다.

것이다.

짓거리이다.

무도 당연하다.

유석열역적패당이 미일상전 들과의 반공화국공조놀유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 일본상 전들과 워싱톤에서 이른바 《3자안보회의》를 벌려놓은 역적패당은 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응한다 는 미명하에 《3자련합군사 훈련》정기화와 《북미싸일정 보에 대한 실시간공유》를 내 용으로 한 《공동성명》이라 는것을 발표하였다.

그러가 하면 서울에서 제12차 남조선일본《안보정 책협의회》를 열고 쌍방간의 그 무슨 《미래지향적인 안 **보협력강화》에 대해 무의하**

새로운 북침전쟁도발을 위 한 불순한 모의판,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 밑에 감행하는 용납 못할 반공화국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 미국, 일본사이의

고 헤덤비는 특등인권범죄자 윤석열역적패당이 반공화 국인권모략소동에 더욱 광분 들의 해괴한 광대극이라 하

하고있다. 지 않을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인민들 이라는자가 미국국제전략문 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와 요

제연구소에서 주관 한 《북인권과 국제 협력》회의 영상축사 라는데서 《북이 조

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 하고있다.》고 줴쳐댔는가 하 면 《통일부》 것들이 그 무 슨 《북인권조사기록의 의 미 및 북인권인식제고를 위 한 민, 관, 국제사회의 역 할》이라는 반공화국광대극 을 벌려놓은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정보공유체계수립》문제 만 놓고보아도 그러하다.

역적패당이 미국, 일본것 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려는 정보라 공화국의 전략적대상 들에 대한 정보들을 말한다. 《북의 핵 및 미싸일위협》

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공 화국의 전략적대상들을 지, 추적한 정보를 미국, 일 본것들과 공유하고있다가 임 의의 시각에 미일상전과 결 탁하여 타격하려는것이 역적 패당이 추구하는 미일남조선 《3자정보공유체계수립》의 침략적목적이다.

역적패당이 미일남조선 《3자련합군사훈련》을 정기 화하기로 한것도 미일상전과 의 부단한 런합군사훈련을 통해 북침전쟁수행절차를 숙

달하고 일단 유사시 미일상 전의 힘을 빌어 공화국을 압 살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 로이다.

외세와의 반공화국공조놀 음이야말로 유석열역적패당 의 추악한 대결적, 호전적정 체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 는 매국배족망동이다.

역적패당이 《북위협》이라

는 당치않은 구실로 미일상전 과 결탁하여 대결야망을 실현 해보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어 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역적패당이 떠드는 《북위 협》이란 미국, 일본것들과 결탁하여 벌리는 반공화국전 쟁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에서 살인적인 최장의 로동시

간을 강요당하고있고 로동재

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

되고있다. 그런가 하면 수백

지 않는다.

해 꾸며낸 한갖 허구에 지나

지키기 위한 공화국의 정상 적인 군사행동, 국방력강화 조치들이 어떻게 그 누구에 대한 《위협》으로, 《도발》 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역적패당이 《북위협》에 대 해 떠드는것은 저들의 반공 화국전쟁대결정책이 불러올 파국적후과에 대한 근심고민 과 피해의식의 집중적인 발

로이다

더우기 역적패당이 그 어 떤 침략세력도 감히 넘볼수 없는 절대적힘, 초강력을 비 축한 공화국을 외세와 결탁 하여 어째보려는것은 썩은 울바자들로 해일을 막아보려 는것과 같은 가소롭기 그지 없는 추태, 자멸적망동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하내비처

럼 섬기는 미국상전도 공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 패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 도 한해에 근 3 000명이나 이 친미친일사대매국과 반공

화국대결에 광분하고 특권족

지대,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자들이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해빛밝은 락원인 공화국을 걸고들며 그 무 슨 《인권문제》에 대해 혀

> 바닥에 올리고있는것 이야말로 언어도단이 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역적패당이 반공화국인권 모략소동에 필사적으로 매 달리고있는것은 극악한 인권 교살자, 인권유린왕초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 우고 날로 고조되는 민심의 반윤석열, 반《정부》투쟁기 운을 딴데로 돌려보려는 흉

심에 따른것이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빛 을 가리울수 없듯이 제아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미쳐날뛰여도 참다운 인민의 세상, 인민의 락원인 공화국 의 진모습을 가리울수도. 흙 칠할수도 없다.

역적패당은 터무니없이 남을 걸고들기 전에 악취 풍기는 제목퉁이부터 씻어 야 하며 력사앞에 저들의 반인민적죄악을 심판받아야 한다.

패당이 공화국에 비한 저들의 군사 적렬세를 만회하기 위해 첨단무기개발 및 도입책동에 기 를 쓰고 매달리고

역적패당은 미 국, 일본과의 실 시간 《정보공유체 계》를 실현하는것 과 함께 《독자적 인 정찰감시능력의 확보》를 운운하며 올해중에 첫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 고 초소형위성체계

있다.

개발도 본격화하려 하고있다. 또한 이달안에 스텔스성능을 가진 3 무인기를 제작하고 다음해부터 전력화 03 하겠다고 떠들며 여기에 막대한 자 금을 지출하려 하

고있다.

과 공중, 해상에서 공화국의 주요핵심 시설들을 《선제타 격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 한다고 떠들며 《전술지상대 지상유도무기-2》의 개발과 고위력탄도미싸일의 대량생 산, 미국산스텔스전투폭격기

이와 함께 지상

기동형 3축타격체계》의 완비 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천하대결광, 전쟁부나비들 의 허세성객기가 아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외세와

《F-35A》의 추가도입과 새

로운 합동화력함의 건조. 전

자전기의 개발과 《해상기반

공화국전쟁책동은 남조선에 서 《안보위기》를 증대시키 고 반전평화투쟁열기를 고조 시키고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는것은 거짓말이다. 윤석열 은 미국만 바라보지 말고 국 민을 안심시킬 방법을 내놓 으라. 그리고 이제라도 대북 전쟁야욕을 버려야 한다.》, 《항시적인 대응보복과 핵공 격능력을 갖춘 북을 어떻게 쉽게 료리하겠다고 북침전쟁 을 저지르려 하는가, 참으로 어리석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남조선 민심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는 이러한 《안보불안》 과 반전평화투쟁 열기를 눅잦히고 저들의 군 사적렬세를 만회하기 위해 첨 단무기개발 및 도입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역적패당의 이러한 군비증강, 무력증강책동은 오히려 저들의 취약성만 드러 낼뿐이다.

지난해에만도 역적패당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군사적대 응조치에 기겁하여 군사적대 결책동에 광분하였지만 오히 러 그것을 기화로 저들의 미 싸일방어체계가 미싸일을 정 확히 탐지. 요격함수 없는 부실한 체계라는것과 최신 식무기, 첨단무기들이라는것 이 쓰다버린 파철과 다름없 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 다. 역적패당이 공화국에 비 한 저들의 군사적렬세를 만 회해보려고 무기개발 및 방 위산업강화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미국의 핵전략장비들

지만 그것은 공화국의 무진 막강한 위력에 대한 숙명적 이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하 궁여지책이며 역적패당은 결 단코 공화국에 비한 군사적 렬세를 절대로 만회할수 없 다. 사실 남조선호전광들이 최강의 핵보유국인 공화국을 상대로 군사적행동을 운운하 는것자체가 가당치도 않은것 이며 자멸적행위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무기개 발 및 도입책동은 가뜩이 나 첨예한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핵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망동 으로서 조선반도의 정세긴장 과 군비경쟁의 근원이 어디 에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 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반공화 국압살야망에 들떠 무기개 발 및 도입책동에 열을 올릴 수록 녹아나는것은 남조선의 경제와 민생뿐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경 제와 민생이 최악의 위기에 서 허덕이고있는데도 당국이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대신 《북위협》을 떠들며 그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승산도 없는 대결책동에 돈을 날려 버린다고 비난을 퍼붓고있는 것은 응당한것이다.

심각한 경제파국과 민생악 화로 도처에서 아우성만 터 져나오는 제 집안꼴은 보려 고도 하지 않고 공화국을 해 치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탕 진하며 무력증강에 광기를 부리는 역적패당이야말로 절 대로 용납 못할 천하역적무 리, 호전광들이다.



구마저 짓밟히고 무지막지한 파쑈폭압통치가 실시되고있 는 세계에 둘도 없는 최악

선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 에서는 역적패당의 반인민적 인 《로동정책》으로 말미암 아 로동자들이 언제 해고당 할지 모를 항시적인 위협속 살이를 하거나 비닐,

만의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 매이고있고 집이 없어 세방 지함 의 인권동토대가 바로 남조 으로 만든 집 아닌 집들에 서 간신히 생계를 연명해가 는 막바지인생들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여기에 《고금리》, 《고물 가》, 《고환률》의 《3중고》

로 도탄에 빠진 민생은 더욱

속들을 위한 반인민적정치에 매달리고있으며 지어 생존권 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 《불법》, 《폭력》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을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 는 단체들과 인사들이 검찰 깡패정치의 희생물이 되고있 는 참혹한 현실 역시 남조선 의 비참한 인권실상을 잘 말 해주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은 《민생파탄 못살겠다. 윤 석열 퇴진하라!》, 《정치깡 패, 검찰독재 윤석열타도!》 《우리가 주인이다. 초불이 이긴다.》 등의 구호를 웨치 며 매일과 같이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에 펼쳐나서고 있다.

남조선을 이러한 인권폐허

본사기자 박철 남

하는 저들의 지지률에 대한 조사결과를 극구 부정해나서 고있다.

미국행각직전 윤석열역도 가 직접 나서서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주민들을 속이는 행위나 같 다고 하면서 여론조사기관 들을 《거짓선동과 날조》,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대한 위협》, 《사기군》으로 묘사 하며 거짓과 위장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된다, 롱락당하 면 안된다고 악청을 돋구었

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행정부것들도 여론조사결과 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한 의 구심을 느낀다고 하면서 여 론조사기관들을 련일 걸고들 고있다.

언제는 변동이 심한 지지 률에 《일희일비》하지 않겠 다, 별로 참고하지 않는다고 희뗩게 놀아대던 윤석열역도 한 평화》를 떠들며 외세와

된다.

알려진바와 같이 윤석열역 도의 지지률은 20%계선으로 급격히 떨어지고있다.

그것은 역도가 하는짓이란 하나에서 백까지 모두 민심 을 거스르고 남조선인민들 의 리익을 해치는것이기때문

재벌들, 기업들의 리익만을 위하고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반로동정책, 반인민적 악정에 매달리고 《힘에 의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 과 날조》라고 헐뜯고있는것 는자들이 바로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다. 그뿐이 아니다. 친미, 숭미굴종행위로 남조선 을 불행과 파국의 진펄속에 더욱 깊숙이 밀어넣는것으로 도 성차지 않아 민족의 천년 숙적인 섬나라것들에게 머리 를 조아리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고 재침의 길 을 열어주고있는 천하역적들 도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 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 은 윤석열역도를 《윤재앙》 으로 단죄하며 반윤석열투쟁 에 떨쳐나서고있다. 지어 보 수세력내에서까지 무지무능 하고 독선적이며 막돼먹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윤석열역도의 지지률에 대 한 여론조사결과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인간추물인 역도를 비난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

이다.

하지만 제반 사실들이 보 여주는것처럼 현실을 부정하 는 거짓선동과 날조를 일삼으 면서 민심을 모독하고 우롱

하는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역도와 그 패당이다.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

제아무리 여론조사결과를 가 짜여론으로 몰아대도 저들 의 추악한 본색과 만고죄악 을 가리울수도 덮어버릴수도

민심은 천심이며 민심에 역행하는자들에게는 래일이

본사기자 김정 혁

《윤석열은 일본에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의 〈대통령〉 이 아니라 일본수상의 입에 서나 나올수 있는 망언중의 망언이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도가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와의 회견 에서 《일본이 100년전 력 사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 다는 생각을 받아들일수 없 다.》고 망발을 늘어놓은것 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5일

목소리 광주지역 《일제강제동원시 민모임》이 성명을 통해 이같

개탄과 분노의

이 비난하였다. - 《침탈당한 우리 아픈 력사도 모자라 100년전 행한 죄과에 대해 반성,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애걸이라도 하 겠다는것인가.》

유석열역도의 우와 같 은 망언에 남조선의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규탄 하였다.

천하역적

-100년전에 일어난 일 고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 을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 거나 무조건 무릎을 꿇으 라고 하는것은 받아들일수 없다. -

이것은 일본에서 나온 소 리가 아니다. 다름아닌 윤석열역도가 떠

벌인 망발이다. 이 하나만 놓고서도 민족 을 등진 윤석열역도의 추악 한 정체를 더욱 톡톡히 알

수 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일본군성노예범죄는 《매 춘행위》로, 강제징용은 《자 발적》인것으로 오도하면서 과거죄악을 미화분식하고있 는가 하면 조선에 대한 일 본의 통치가 있어 남조선의 본사기자 발전과 번영이 있다고 떠들

은 《해방전쟁》이라고 거리 낌없이 나발질하는 군국주의 후예들의 서식지이다.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에 대해 제땅이라고 우겨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력 사교과서에도 기술하는 등 군 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피 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천년 숙적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곳이다. 일본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분노와 증오로 치를 떨고 인류가 경멸하고 타매 하는 극악무도한 전범국, 특 등범죄국가이다. 그런데 윤석열역도는 죄

악우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간특하고 파렴치하며 간악 들의 최대의 비극이 아닐수 무도한 죄악의 무리들의 특 대형죄악을 무마해주고 화 해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떠들고있으니 정녕 민족의 피와 넋이란 털끝만큼도 찾 아볼수 없는 쓸개빠진 만고 역적, 《을사5적》도 무색 케 할 천하역적이다.

어제는 《매국노라는 말을 듣는한이 있더라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성사시키겠다.》 고 떠벌이며 섬나라에 찾아 가 스스로 굴종의 멍에를 걸

머지면서 일본의 강제징용죄 악을 백지화하고 재침의 발 판을 마련해주더니 오늘은 천년숙적의 변호사가 되여 섬나라날강도들과의 《관계 개선》을 줴치고있는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노가 남조선 에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 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수치이고 남조선인민 없다.

이런자를 그대로 두면 섬 나라야만들에게 독도는 물 론 남조선도 송두리채 섬겨 바치리라는것은 너무도 자명 하다.

화근은 뿌리채 들어내야 한다.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 열역도를 천하역적, 민족의 재앙거리로 단죄하며 윤석열 퇴진투쟁에 펼쳐나서고있는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

본사기자 전명진

윤석열역적패당 의 북침전쟁연습 0 책동을 반대하여 ┰╽ 《평화의 조각보 만 하 들기》 실천활동을 진행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 부는 《〈한〉미동 맹, 〈한〉미일 군사 동맹강화와 계속되 0 는 전쟁연습으로 인 해 어느때보다 조선

남조선에서 북침

이 벌려놓으며 조선

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우크라

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떠벌인 윤석

열역적패당을 단죄

규탄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계속 세차게

얼마전 6.15공동

선언실천 남측위원

회는 경기도 안산시

벌어지고있다.

= 의 어느한 공원에

■ ■ 전쟁연습을 미친듯

화

호

반도에 군사적대결 刀 과 긴장이 높은 상 각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념원

일을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고 하면서 실천활동의 취지

를 밝혔다. 이날에 진행된 《평화의 조 라고 하면서 《더 큰 위험을 각보 만들기》실천활동은 공 원을 찾은 수많은 시민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더욱 활 발하게 진행되였다.

한편 이날 공원에서는 《〈한〉 반도 평화행동 서명 운동》과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 자배상방안의 무효화를 위 한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되

시국회의》도 지난 24일 열 렸다

여기서 《서울시국회의》 상임의장은 《〈한〉 반도는 민생파탄, 평화파괴, 민주주 의실종이라는 3대위기에 봉 착해있다. 윤석열 (정부) 는 3대위기를 날로 악화시키고 있다.》,《〈한〉일굴욕외교, (한) 미굴종외교는 물론이고 이제는 중국과 로씨야를 적 으로 몰아붙여 (한) 반도를 신랭전의 진영론리에 갇히게

한편 《정의당》 서울시당 황이지만 평화의 조 위원장은 윤석열역도의 미국 행각과 관련하여 《〈한〉일정 상회담과 같이 일방적인 퍼 주기만 하고 청구서만 잔뜩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 받아올것이라면 돌아올 생각 고 시민들의 힘으로 평화통 하지 말라.》고 주장하였으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했다.》고 규탄하였다.

은 《경제와 안보를 가장 위 협하는건 윤석열 (정부)》 초래하기 전에 이번 미국방 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지원립장을 철회하

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평화통일시민행동》 대

표도 《이미 윤석열 〈정부〉 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 기를 지원하면 그 재고를 채 워주는 방식으로 간접 무기 지원을 하고있다.》, 《이제 는 〈대통령〉이 나서서 대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 놓고 살상무기지원, 군사개 입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하 고있으니 이번 방미길이 어 느 때보다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역적패당을 단죄하 였다.

> 《서울시국회의》참가자들 은 《친미사대 굴종외교 윤 석열 (정부) 규탄한다.》, 《〈한〉 반도 전쟁위기초래하 는 우크라이나군사지원 즉각 중단하라.》, 《불법도청 자 행한 미국에 즉각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라.》고 윤석열 역적패당에게 강력히 요구 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의 이러한 대중적투쟁은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를 막고 평화를 수 호하기 위한 남조선민심의 의지와 지향의 뚜렷한 분출 이다.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여 와 그 패당이 이제 와서는 결탁하여 조선반도를 전쟁의 열역도와 그 패당은 여론조 론조사기관들이 련이어 발표 민심이 투영된 여론조사결과 참화속에 몰아넣는 반공화국 사결과에 대해 《거짓선동 와 그것을 조사발표한 기관 들까지 통채로 부정해치우고 있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이렇게 여론조사결과를 믿을수 없 다, 《거짓선동》이라며 고 래고래 소리치고있는것은 남 조선에서 고조되고있는 반 윤석열, 반《정부》투쟁기운 을 가라앉혀보려는것과 관련

이다

《로동개혁》을 한다면서

대며 《방위백서》에도 표기



THOLD ONE WESTING

《봄철녀성옷전시회=2023》

화창한 봄계절을 맞는 요 이 전시되여있다. 즘 평양에서 특색있는 《봄 철녀성옷전시회-2023》이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의 봄 정서를 더해주며 불장식으로 특색있게 단장된 야외전시회 장에 우아하고 산뜻한 각양 각색의 봄, 여름철녀성옷들

재질과 형태, 색, 무늬, 장 식효과를 잘 조화시킨 계절 옷들은 년령별, 직업별특성과 체형에 맞게 녀성들의 인품과

용모를 돋굴수 있도록 세련되 고 단정하며 활동에 편리하 게 만든것으로 하여 이곳을 찾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 으고있다.

특히 녀성옷의 발전추세와 현대적미감을 잘 살리고 꽃계 절특유의 자연풍경과도 어울 리는 밝은 색과 여러가지 형 고있다.

전시회에서는 피복생산단위 들사이의 기술교류, 옷도안창 작 및 가공과 관련한 경험발 표회, 세계적인 피복공업의

실태와 발전전망에 대한 강습 그리고 옷제품들에 대한 전 문가심사, 군중심사와 함께 주문봉사도 진행되고있다.

전시회장을 찾는 녀성들 은 《규모와 형식, 내용에 있 어서 훌륭하고 화려한 〈봄 철녀성옷전시회-2023〉은 나 날이 발전풍부화되고있는 우 리의 옷차림문화에 대해

로운 눈으로 볼수 있게 하는 특색있는 전시회》라고 찬사 를 아끼지 않고있다.

《봄철녀성옷전시회-2023》 은 고상한 옷차림문화를 발 전시키고 피복전문가들과 애 호가들사이에 우수한 기술을 호상 교류하는데서 또 하나의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공화국의 곳곳마다에는 인민들 을 위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그 쯘하게 꾸려져있다. 이곳들에서는 일요일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려는 사람들로 흥성이 고 희열에 넘친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른다.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위치한 청년중앙회관에서도 사람들 이 바드민돈을 치면서 승부를 겨루 느라 여념이 없다.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 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경기에서 이긴 처 녀애가 기뻐서 콩콩 뛰자 사람들은 저마다 박수를 치며 축하해준다. 평양보링관에서도 활기에 넘친 보링경기가 이채를 띤다.

한 녀성이 달려나가며 보링공을 맵시있게 굴려 세워놓은 봉들을 보 기 좋게 넘어뜨린다.

옆주로에서는 한 남성이 던진 보 링공이 중심을 타고 기세차게 굴러 가는듯하더니 삽시에 방향을 꺾어 한쪽측면의 봉들만을 넘어뜨렸다. 아쉬운듯 재차 공을 들고 주로에 나서는 남성…

그런가 하면 평양보링관에 설치 되여있는 롱구공넣기오락기재에서 의 유희도 헐치 않은듯싶다.

한 녀성이 런속 던지는 공이 좀 처럼 륜에 들어가지 않자 속상한 듯 머리를 기웃거리며 숨을 들인다. 평양골프장에 펼쳐진 골프애호가 들의 경기장면 역시 인상적이다.

골프채를 들어올려 골프공을 치

사 화

무시울북성귀행렬이 마을

이름을 써서 높이 드리운 기

발을 앞세우고 풍물을 기세

좋게 울리며 배고개너머 덕

바위마을어구에 이르렀을 때

걸어가며 웃음을 함뿍 담고 속삭 이는 청춘남녀… 메아리사격관에서 권총과 보총을 쥐고 사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 치 사격선수권대회에 나선 선수들

는 사람들, 날아간 골프공쪽으로

을 보는것만 같다. 사람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서 경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 축하도 해주며 함께

기쁨을 맛본다. 희열과 랑만에 넘쳐 휴식일의 하 루를 즐겁게 보낸 사람들은 한결

같이 말한다 《휴식일의 하루를 정말 유쾌하 게 보냈습니다. 몸이 거뜬하고 힘

본사기자



전 (연) 기 (1) 물

금 야 은 행 나 무

함경남도 금야군 동흥 리에 있는 금야은행나무 는 동흥리소재지에서 북 쪽으로 조금 떨어진 안불 사뒤 언덕진 곳에 있는 한그루의 암나무이다.

금야은행나무는 2 000년 을 훨씬 넘게 자란 나무이 지만 오늘도 푸르싱싱 젊 음을 자랑하고있다.

높이는 41m, 밑둥둘 레는 16m, 가슴높이둘 레는 15m이며 밑둥직경은

이다. 나무갓은 직경이 동서방향 으로 40m, 남북방향으로 50m 로서 우산모양의 생김새를 이

4.8m, 가슴높이직경은 4.6m

나 되며 줄기는 1.5m의 높이 쳤다.

나무밑둥에서는 새로 두개 의 어린 줄기가 자란다.

금야은행나무에서는 다 열매가 달린다.

유경애는 1920년대초에 원산

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모들 은 가난에서 벗어나보려고 젖

먹이인 유경애를 업고 춘천으

로 이사가 미국선교사집에서

철도 들기 전에 병으로 어

머니가 죽고 아버지마저 행불

이 된것으로 하여 의지가지할

데 없게 된 그는 눈물많은 소

이후 유경애는 살길을 찾

아 1937년경에 개성으로 자

배우가 될 소박한 꿈이 싹트 게 되였으며 극단들이 공연

하러 오면 그는 남먼저 공연

그러던 그가 요행 발을 들

이민것이 어느한 극단의 연구

하지만 식민지예술인의 불

장소로 달러가군 하였다.

종살이를 하였다.

녀가 되였다.

리를 옮기였다.

생자리였다.

멀리서 보면 작은 산 같고 나무밀에 서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 마치 깊은 숲속에 들 어선것같아 볼수록 더욱 응

학술적으로 의의가 클뿐 아니 라 이 일대의 경치를 한껏 돋 어주는것으로 하여 안불시 와 더불어 전해지는 귀중한 천 연기념물이다.

우한 처지에서 예술의 세계란 한갖 허상에 불과했고 천대 와 멸시, 굶주림은 그림자처 럼 그를 쫓아다녔다.

外食吸炒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이 시기 그는 연극 《등잔 불》, 《정어리》, 《의기 론 개》 등에 출연하였고 《가 족》에 등장하여서는 연기상

해방은 되였지만 미군이 강점한 남조선땅에서 더는 예술을 할수 없었던 유경애 는 진보적인 예술인들과 함 께 38°선을 넘었다.

가 국립영화촬영소(당시)에 서 마음껏 예술활동을 벌리 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예술영화 《내 고향》에 출연한 그는 주인공 관필의 어머니역을 흠잡을데 없이 형상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선문 화공작대활동을 하였으며 전 립연극단, 남포연극단을 비롯 한 여러곳에서 배우로 사업하 였으며 말년에는 조선중앙방송 위원회 화술배우로 있었다.

그가 출연한 대표적작품들

예술영화들과 《연풍 이다.

화술에 남다른 재능이 있 은 그는 영화계는 물론 화 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소설에 나오는 여러 로인들 의 목소리도 서로 다르게 내 고 늙은 녀인과 중년녀인, 처 녀의 목소리도 다 다르게 발 성한 그의 화술은 사람들속 에서 인기가 남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경 고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낸다고, 세계적으로도 유 경애동무만큼 화술수준이 높 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것 이라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가 조선중앙방송과 TV에 자주 출연하여 소설랑독을 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 해주시였다.

그는 장편소설들과 국내외 의 력사책들, 일화집 150여 권을 랑독록음하였다

김일성훈장과 국기훈장 제 1급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 달을 받은 유경애는 인민배우 이며 로력영웅이다.

본사기자

오랜 시간 머리를 숙이고있 놓고 귀가 어깨에 닿을 정도 으면 목이 뻣뻣해진다. 이때 다음과 같은 운동으

로 그것을 풀어줄수 있다. 먼저 머리를 앞으로 조금 기울이고 손으로 목의 뒤부 분을 풀어준 후 계속해서 앞

부분도 풀어준다. 다음 두손을 마주댄 상태 에서 엄지손가락을 가슴에 가 간 젖힌다.

목의 옆부분이 뻣뻣할 때 에는 오른손을 머리에 올려

매번 10~30초씩 3번정도

이외에 안마를 하여 풀수도 있는데 둘째손가락과 가운데손 가락을 태양혈에 대고 엄지손 가락은 귀밑에서 뒤쪽으로 엄 지손가락 두개 굵기만큼 떨어 볍게 대고 둘째손가락과 가운 진 곳에 가져다댄다. 그리고 원 데손가락은 아래턱에 가져다 을 그리듯이 천천히 주무른다.

O

10 00 EQ

ठी

3

팍하고 네모나게 썰어서 국물 0.2cm정도 되게 나박형으로 이 많게 담근 김치를 말한다. 보기만 해도 산뜻한감을 주

는 붉은봄무우는 봄철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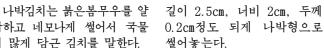
람들의 입맛을 더해주고 양기

를 북돋아준다. 붉은봄무우김치의 신맛은 젖산을 비롯한 유기산에 의

한것이다. 산들은 인체에서 물질대사과 힌다. 정에 생성되는데 음식물형태 로 받아들이면 생리적부담을 곳에 보관하여 먹는다.

덜어준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붉은봄무우 200g일 때 소 금 15g, 파토막 20g, 마늘 편 5g, 다진 생강 2g, 사탕 가루 5g, 고추가루 2g을 준 비한다.

붉은봄무우는 깨끗이 씻어



은색으로 물들인 다음 파토막.

초산, 젖산, 레몬산, 사과 고 18~20℃에서 1~2일간 익



QB1

는 녀류시인)의 남편 김성 립에게 송도남이라는 막역한

송도남은 롱을 잘하였지만 김성립은 그렇지 못하였다. 하루는 송도남이 그의 집 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인사 말을 하였다.

《덕석립이, 멍석립이 김성 립이 있느냐?》

이에 김성립은 아무런 대꾸 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였다.

사탕가루, 마늘편과 다진 생강 을 두고 1시간동안 재운다. 양념을 무친 붉은봄무우

붉은봄무우가 떠오르면 차



허란설헌(16세기의 재능있 그날 저녁 허란설헌은 남편 에게 다음번에도 친구가 오 늘처럼 인사하면 이리이리하 친구가 있었다. 라고 일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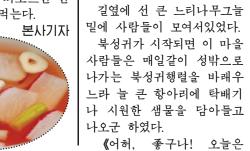
> 며칠이 지나 송도남이 또 왔는데 인사말이 전날과 같 았다 《덕석립이, 멍석립이 김성

> > 립이 있느냐?》 그러자 김성립은 그를 맞 아들이며 이렇게 대꾸하였다. 《귀뚜라미, 맨드라미 송

도라미 왔느냐?》

나박형으로 썬 붉은봄무우 에 고추가루를 두고 버무려 붉

에 1.3%정도의 소금물을 붓



였다.

《어허. 좋구나! 오늘은 무시울이 떠나는구나!》

《어서 목이나 추기고들 가 게. 가는 길 곳곳마다 샘물 이야 있겠지만 인삼뿌리를 씻 어내린 송도샘물같은게 어디 있으며 삼천리를 다 뒤져도 성귀때 먼길 등산에 내세워 정들이고 맛들인 송도탁배기 같은것이 어디 있겠나.》

권하는 말이 하도 듣기 좋 아 목이 마르지 않아도 저저 마다 샘물 한바가지나 탁배 기 한종지쯤은 기분좋게 마

시고 길을 다시 걷는다. 동대문을 빠져나오자 행렬 은 북쪽으로 꺾인 길을 따 라 화장사고개를 바라고 움 직이였다.

최서방은 집을 떠날 때 있 은 일이 문득 떠올랐다. 보패와 장쇠가 아버지, 어

글 리

머니를 따라가 시중을 들겠다 고 하는것을 최서방은 《아버 지, 어머니걱정을 말어라. 아 직 너희들 등에 업혀다닐 형 편은 아니다.》 하고 밀막아 버리려다가 장쇠는 기어이 데 리고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떠 올랐다.

봄에 남성귀를 갔다와서도 며칠간을 어디가 아프오 어 디가 결리오 하면서 끙끙거 리였었다.

몸이 든든치 못해보인다고 의원들이 보약이라도 좀 써보 라고 할 때마다 최서방은 젊 은 놈이 보약은 무슨 보약, 몸단련이 보약이지 하면서 북 서 몸단련을 시키리라 벌써 마음먹고있었던것이다.

떠날 때 최서방은 장쇠에 게 말했다. 《이번 길에 나는 너와 내

기를 좀 하자고 한다. 너는 짐을 지고가면서 아버지, 어 머니시중을 들기로 하고 나와 어머니는 너한테 조금도 매달 리지 않고 다녀오려고 한다. 그래, 어떠냐, 자신있느냐?》

장쇠는 그래도 사내녀석이 라고 말대꾸를 했다.

《헹, 해보자요. 아버지도 쉰나이를 넘겼는데 마음같이 될줄 아세요?》

《이녀석, 나이가 중한게 아 니라 마음가짂이 중하다. 넌 사내라는게 몸을 단련해야지 그런 약골을 어디다 쓰겠느 냐. 사내가 나라 지키는 군 정노릇도 바로 못하면 사람값 에 못간다. 보패는 며칠간 집 과 집짐승을 돌봐야 하겠으 니 못가지만 너는 모든걸 제 힘으로 하면서 몸단련에 힘써 야 한다.》

이렇게 되여 장쇠는 짐을 지고 일행을 따라서게 된것 이였다.

쉰줄에 들어선 나이였지만 아직 건장한 최서방과 마누 라 리씨는 마을사람들과 어 울려서 서로 살펴주고 도와 주면서 어렵지 않게 등산행 렬을 따라가고있었다.

부지런히 걸어서 화장사에 이르러 점심을 치른 일행은 령통사에 들려서 하루밤을 묵으면서 등산준비를 면밀히 갖추었다.

다음날은 등산로정중에서 제일 힘든 천마산줄기를 에

돌아넘어야 하기때문이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일행 은 짚신감발을 든든히 하고 이고지는 짐들도 간편히 꾸 린 다음 기세를 올리며 일찌 기 길을 떠났다.

령통사에서 오관산(갓 다섯 개를 벗어놓은듯한 런이은 다 섯봉우리)을 옆에 끼고 서사 정골을 따라 북쪽으로 가느 라면 천마산의 험준한 봉우 리들이 보인다.



봉, 멀리 서쪽으로는 애기봉, 깃대봉을 비롯한 바위산들이 대흥산성 성벽으로 억척같이 련결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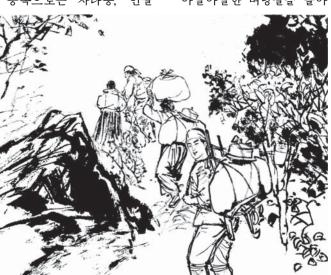
수도 개성 방위성이였던 대 흥산성의 남문을 통해 성안으 로 들어서면 북쪽으로 열린 대흥골에 이르는데 여기서부 터 맑고 시원한 공계수를 따 라 내려가면서 대흥사, 관음 사를 거치게 되며 북성귀로정

의 마지막지점인 천하명승 박 연폭포에 이르게 된다.

못보면 한생의 한이 된다 는 박연폭포에서 내 나라, 내 고향의 자랑과 긍지를 한껏 느껴보는것이 북성귀의 참멋 이고 등산놀이에 나설 때 누 구나 가슴에 품는 큰 소원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려면 아직도 멀고 험한 등산길을

헤쳐가야 하였다.



나가는 힘겨운 길이 앞에 었다. 발아래는 수십길 벼랑이고

머리우에도 하늘에 치닿은 벼랑이다.

길은 겨우 화로 한개를 들 여놓을만한 너비였다. 부득 이 벼랑을 안거나 등지고 모 로 서서 게걸음으로 지나가 는수밖에 없었다.

벼랑을 안고 도는것을 《안

로 머리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인다.

엇바꾸어 진행한다.

시키기때문에 목이 뻣뻣해진 것을 풀수 있다.

본사기자

돌이》, 등에 지고 도는것을 《지돌이》라고 하였다.

빈목으로도 오금이 저려서 발을 옮기기가 바쁜데 짐을 이고지고 지나가자니 오죽이 나 힘들터인가. 무슨 일에서 나 담이 크다고 자부하던 최 서방도 벼랑아래를 한번 흘 끔 내려다보더니 오금이 지르

르 저려들었다. 나이들면서 어느새 이런 겁 쟁이가 되였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 어 어험 하고 큰 기침을 하고 나서 마음을 다잡았다.

저 지나가야 하는데 주저하 는 기색이 엿보이였다. 최서방은 느슨히 웃으며 말

정이다. 짐을 진 장쇠가 먼

그런데 장쇠와 마누라가 걱

을 걸었다.

《장쇠야, 앞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걸 봤지?》 《예, 봤어요.》

《안돌이든 지돌이든 네가 편리한대로 해라. 짐을 등에 졌으니 벼랑을 가슴에 안고 나가는게 편할게다. 아낙네 들도 눈섭 한오리 까딱 안 하고 지나가는데 사내녀석이 라는게…》

《체, 걱정말아요. 내가 뭐 겁내는줄 알아요?》

장쇠는 우둘거리면서 벼랑

길에 들어섰다. 《얘야, 덤비지 말고 조심 해라.》

걱정을 담아 말하는 어머 니 리씨의 치마아래섶이 두 무릎과 함께 사시나무 떨듯 하였다.

ㄱ-1595 주소: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